

# 사회적 공간 담론에 기초한 공간실천 연구

## A Study on Space Practice Based on the Discussion about Social Space

**Author** 송영민 Song, Young-Min / 정회원,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박사과정 수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viewpoint of space practice method through the discussion about social space. The study researched how social practice strategy is unfolded through the understanding about daily life, space manufacture and interaction. As a social practice, space design should adopt the interaction approach method on the basis of social relationship latent in the base of space. As a result of study, the viewpoint of space practice can be summarized into 3 viewpoints as below.

First, it is the viewpoint of recognition through the experience meeting daily life. Rural space is the one of experience where daily life and social relationship interact each other. As a delicate sensible experience, it is the recognition of special space detected in the space where daily life occurs.

Second, it is the viewpoint of form creation as a media product of society and space. Space is a whole creature of the relationship that has been formed socially as a historical process. Depending on the goal of community, new form is created by sharing the characteristic of space and having sense of kinship.

Third, it is the viewpoint of tuning as a practice for subject participation. Rural space is the daily space to practice structured society subjectively through interaction. In the place of subjective life, there should a space practice with the tuning and cooperation method between subject and society.

The main vein of space practice, which is analyzed with the discussion about social space, shows that out lives are maintained by space practice and directly connected to social relationship and structure. After all, the space, which is searched for through space design, has a clear subjectivity, ensures abundant subject life and is led to realization of community value.

**Keywords** 사회적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 실천  
Social Space, Social Interaction, Practic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인간은 공간에 기반하여 삶의 전 과정을 전개한다. 공간은 사물과 사건,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고 유지, 소멸되며 사회적 삶으로서의 가치, 관습, 태도 등이 내재된다. 그래서 공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특성을 규정하고, 다시 의미를 부여받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공간, 즉 사회적 공간이 된다.

실천이란 일상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행위의 의미를 가진다. 공간적 실천은 일상의 행위와 공간이 합쳐진 개념으로 공간과 결부하여 추구되는 일상적, 공간적 행위이다. 공간적 실천으로서 디자인은, 사회의 주체로서 특정

한 효과의 역할이나 방식의 실행을 말한다. 이 때 실천은 개인과 집단, 공동체, 사회적 상호관계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추구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에서의 실천은 모두 공간적 실천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실천의 공간은 현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대안적인 공간, 즉 우리가 실천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공간이다. 여기에는 이상적인 사회, 사회적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도시공간의 일상이 함축된다. 따라서 사회적 공간의 실천에 대한 탐색은 현대사회의 일상으로부터 공간의 생산과 사회적 담론, 그리고 공간의 행동적 실천에 이르는 이론가들의 사유를 통해 이상적 공간을 전망하는 과정이다.

공간은 지식이나 담론에 의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동하는 실천의 장이다. 공간을 디자인 할 때, 디자인과

정이 실천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적 관계가 함축된다. 공간디자인 자체가 이미 사회적 공간의 실천이며 공간실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사회학자 및 이론가가 이해하는 공간담론을 통해 공간디자인의 새로운 실천적 관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공간실천으로서 공간디자인이 지리적, 장소적, 환경적 공간과 그 기저에 잠재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실천되는 방식과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의 실천에 대한 이해는 후속되는 공간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일상적 삶과 공간적 토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실천의 근거로서 사회적 공간담론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일상생활을 토대로, 공간이 생산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상호작용의 관계로부터 획득되는 공간실천의 단서들이다. 이러한 공간계획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에 의한 공간실천으로서 공간디자인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사회와 공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과 사회적 공간의 생산, 그리고 상호작용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학에서 시작된 공간적 실천의 담론과 그 실행으로서 사회적 실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셋째, 공간적 실천이 어떻게 공간담론으로부터 구체화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포착되는 공간디자인의 실천적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공간의 실천방향을 탐색하고 실천사례를 통해 공간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공간적 실천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 2. 사회적 공간 담론

### 2.1. 공간과 사회

공간의 구조는 형태적, 양식적 특성 이전에 그 사회의 정책과 법, 규제, 경제 등에 의해 규정되며, 공동체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규칙을 사회로부터 제공받는다. 이러한 사회제도는 정의에 따라 사람들의 집단 혹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이 집단은 가족에서부터 기업이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와 규모를 가진다. 이러한 집단을 수용하는 제도는 이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성을 형성한다.<sup>1)</sup>

사회구성원의 관계가 공간을 떠나서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와 공간은 상호적 관계이며,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집합체로서 동일한 위계를 가진 개인들의 관계망이다. 이 관

계의 바탕이 개인이고, 개인과 집단은 사회적 관계로서 상호작용하며, 공간은 이들의 매개가 된다. 따라서 사회적 공간은 개인의 삶이 사회와 연관되듯 공간과도 밀착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공간담론은 공간의 존재론과 인식론적 공간개념에 의해 형성되었고, 이후 건축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형태주의 공간론과 체계를 강조하는 구조주의 공간분석에서 최근에는 인문과학적<sup>2)</sup> 탐색으로 전개되어 왔다. 사회적 공간담론을 주도하는 앙리 르페브르(H. Lefebvre), 게오르크 짐멜(G. Simmel), 기 드보르(Guy Debord),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sup>3)</sup>는 사회적 공간의 철학적, 사회학적, 도시학적 시선을 통해 공간실천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들은 현대사회의 일상성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간의 예술적 상상력이 어떠한 행동으로 실천되는지 실험하였다. 또한 공간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서의 개인과 공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이론과 실행의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2.2. 일상성의 사회

르페브르에 의해 제기된 ‘일상성(quotidienete)’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자 일상성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시도한 것에서 출발한다. 현대사회의 이해는 일상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며, 일상이 사회진체를 파악하는 단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단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규정하고 조망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일상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일상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 특히 관습, 언어, 소비, 이미지 등으로부터 배경이 되는 시대적, 사회적 성격들을 통찰<sup>4)</sup>하였다.

2) 에밀 뒤르켐(E. Durkheim), 게오르크 짐멜(G. Simmel), 피에르 부르디외(P. Bourdieu), 앤서니 기든스(A. Giddens), 그리고 니클라스 루만(N. Luhmann)이 다양한 공간개념을 다루고 있다. Markus Schroer,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장소·경계, 에코리브르, 2010, p.12

3) ①르페브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배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일상생활을 분석하였다. 현대사회의 다방면에 이루어지는 자본과 합리주의에 의해 소외되는 개인의 일상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공간을 사유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또한 공업화시대의 상품생산과 마찬가지로 도시화 사회에서는 공간이 생산되고 소비, 교환되고, 공간의 생산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②짐멜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속성이나 구조집단이 상호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사회를 다수 개인들의 상호관계로서 개인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합으로 파악하였다. ③드보르는 르페브르의 영향을 받아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그의 이론적 배경에 두고 있다. 그는 스펙타클한 도시의 일상과 맞물린 소외로부터 극복을 도시공간의 예술실험으로 제안하였다. ④게데스는 도시공간계획에서 이론적, 실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도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도시개선을 위한 실천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4) 르페브르는 그의 저서 「현대세계의 일상성」에서, 일상이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스펙타클한 이미지로 부각되는 광고를 비판하

1)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p.13

일상의 반복을 통한 일상성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적 특성이다. 일상성은 무수한 만남이며 분업으로 구별되는 개인과 집단, 계급 등 다양한 생활단위를 결합시키는 시간과 장소에서 생성된다. 그가 묘사하는 현대사회는 일상의 지배로부터 끊임 없이 공허하고, 개인 혹은 특정집단의 여러 부분에서 소외된다. 이 일상은 사회적 삶 전반에 관련되며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획일적 습관과 소외의 영역을 포함한다.

르페브르는 소외의 문제와 함께 일상을 모순된 실체로 인식하였는데, 그에게 일상이란, 자연적 순환과 '합리적' 직선 양식의 반복이 교차하는 장소이고 진부한 일상의 소외와 소외되지 않는 특별한 요소가 중첩되는 장소<sup>5)</sup>이다. 이러한 일상이 의미 있는 이유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관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접근되기 때문이다.

르페브르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상생활의 반복과 특성을 현대성이라 하고, 이 현대성의 문제를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양식(style)<sup>6)</sup>의 부재를 들었다. 예술의 관점에서 양식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소재와 형태를 다루는 특징으로서 공통적 전형을 형성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도시, 현대사회의 일상성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로서 '내용을 압축하지 못한 형식'<sup>7)</sup>의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양식이 소멸된 것이다. 또한 행동양식의 측면에서도 일상성은 생활양식의 상실을 경험한다.

두 번째는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사라진 축제의 부재이다. 르페브르는 혁명을 축제의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적, 지배적 도시공간의 점유에 의한 여가공간의 소멸을 의미한다. 권력에 지배되는 현대도시의 스펙타클로부터 비지배의 장소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행위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축제인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종식인 축제는 일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자, 현대사회의 현대성을 극복하는 문제해결의 방안이다. 일상생활의 도시는 체계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적 도시구조이고, 축제는 자율적, 창조적, 인간적 속성을 가진 이상향(utopia)이다. 현대도시가 신비화될지라도 일상생활의 상투성을 초월하려는 민중의 욕망은 현실의 욕구이며 진정한 유토피아적 충동의 표현<sup>8)</sup>인 것이다.

르페브르의 일상성 연구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 습관적, 주기적, 의식적, 무의식적 행위 혹은 일상생활의 탐구이다. 소비문화로 점철된 현대 도시공간의 문제점과 일상생활의 식민화된 모습들을 인식하면서 공간적 실천 전략을 통한 소외의 극복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양식의 부재와 자유로운 축제의 소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간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

일상은 사회적 공간담론의 핵심주제로서, 사회적 상호관계 및 공간적 실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일상성으로부터 지속적인 것, 영원한 것, 균형 잡힌 것<sup>9)</sup>을 갈구하며, 침윤된 일상생활의 전복과 의미,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 2.3. 사회적 상호작용

짐멜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속성이나 구조집단의 사회학<sup>10)</sup>이 상호관계(wechselwirkung)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행위, 관계, 집단, 제도, 조직 체계와 이들 간의 다양한 혼합형태를 포함한다. 대도시 공간은 '사회적 관계유형의 표현일 뿐 아니라 그 유형을 형성해내는 기반으로 의미를 갖는 것'<sup>11)</sup>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공간과 사회의 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짐멜은 사회의 형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회적 조직화와 공간적 특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사회의 조직적인 면과 개인의 활동이 공간구조와 관계있음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공간은 그 자체로는 '영향력이 없는 형식',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지만 공간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가운데 상호작용은 다시 공간을 채워준다. 상호작용과 공간은 하나의 상호적인 조건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공간이 없으면 상호작용 자체가 형식적 조건으로 존재할 수 없는 반면, 이 상호작용이 공간의 사회적 중요성을 만든다.<sup>12)</sup> 이는 개인의 삶이 공간에 기반하며, 일상적 삶의 양식이 공간에 의해 지배되고 삶의 양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역사성과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형식<sup>13)</sup>이며, 사회적

었다. 상품판매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왜곡된 이미지로 소비된다. 이러한 일상성의 모순과 문제들로부터 사회와 관계를 맺고 소외를 극복하는 사회적 실천을 제안하였다.

5)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문화이론적 접근, 전남사학회 46권, 2005, p.288  
6) 양식은 사회적으로 유지되는 질서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균형을 대변한다. 사회적 관계들이 그 양식에 개입하면 공간은 생산양식과 함께 변화한다. 물리적 공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더 빨리 변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간의 역사가 존재하고, 그 역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7) Henri Lefebvre,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기과량, 2005, p.15  
8)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문화이론적 접근, 전남사학회 46권, 2005, p.292

9) Henri Lefebvre,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기과량, 2005, p.14  
10) 도시사회학의 주요한 이론 중 하나는 공간적 특성과 사회조직의 관계에 대한 탐구이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의 형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개인의 활동을 통해 공간이 생산되고, 물리적 공간배치가 개인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1)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도서출판 한울, 2002, p.88  
12) Markus Schroer, 공간·장소·경계, 정인모·배정희 역, 예코리브르, 2010, pp.72-73  
13) 짐멜이 말하는 형식이란 그 내용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유형화된 패턴의 사회적 요소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회적 형식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문에 짐멜의 접근방식을 형식사회학이라 한다.

으로 결정화되는 속성을 지닌다. 상호작용은 경제적, 정치적 관계와 법률적 관계에 귀속시킬 수 없는 고유한 성질의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사회학이 실재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추상된 관계의, 형태에 관한 과학 혹은 사회의 형태적 기하학이라는 정의에서 집약<sup>14)</sup>된다.

집결의 이론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활동을 통한 공간의 구조와 공간적 배치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전자는 공간의 독점성이 속하는 공간 성질과 도시나 집처럼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공간 구조로서 공간 구성물의 관점이다. 공간 성질은 상호작용의 양태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공간 형식의 기본 성질로서 공간생산 이론에 유효한 인자이다. 공간생산론이 이론적 접근인 반면, 공간적 배치와 활동측면은 직접적이고 행동적인 공간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실천으로서, 개인과 공간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 그 상호관계이며, 삶의 공간적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2.4. 사회적 공간의 생산

르페브르는 공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sup>15)</sup>된다는 ‘공간생산론’을 제시하였다. 개인과 관련된 모든 사회 과정과 사회 활동이 반영되는 실재로서의 공간을 제시하고, 공간의 역사를 살핌으로써 사회적 공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물리적 공간, 사회적, 정신적 공간이라는 세 가지 개념<sup>16)</sup>을 설정하고, 사회적 공간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공간은 공간생산 이론의 핵심이며, 개인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간생산 방식을 가진다.

사회적인 관계들은 공간 안에서, 공간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어느 경우에도 공간적 관계, 즉 공간배치와 형태로 표현된다. 근대화와 함께 이미 시작된 도시혁명의 시대에서 사회적 실천은 무릇 공간적 실천<sup>17)</sup>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를 실현시켜주는 직접적이며 실체적인 매체는 바로 공간인 것이다. ‘매체-관계의

결합은 각각의 경우마다 별도의 분석을 필요<sup>18)</sup>로 하는데, 이는 공간의 생산으로부터 공간을 변화시킨 사회적 배경에 대한 함축적, 명시적 설명을 포함한다. 결국,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고 이해된다. 공간의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집단과 지식, 이념, 법률, 기호, 표상 등이 추상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공간은 이들 사회적 관계의 ‘이중 삼중의 공간표상’<sup>19)</sup>으로 중층화되어 생산된다.

르페브르가 비판하였듯이 기존의 공간개념은 철학적이거나 수학적이고 객관적,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공간은 사물의 물리적 배치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일상의 공간적 배치 형태이며, 역사적 공간에 인간의 사회·공간적 상상력과 전망이 부가된 개념<sup>20)</sup>이다. 공간의 물리적 구성은 그 구조와 공간 내에 거주하는 주체들로 구성된다. 주체들은 공간의 기능과 형식을 파악하고 공간에 함축된 가치, 상징 등의 의미를 표상하는 물리적 사실을 통해 사회적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개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물리적 공간을 전유하며 공간구조를 변화시키고 의미를 부여한다.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삶의 영역에서 관계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식과 담론에 의한 상징과 지배, 권력의 외연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과 물리적으로 구축된 공간은, 그 과정과 표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산된 물리적 공간의 구조와 체계는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작동하며, 우리의 사상과 삶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 3. 공간적 실천방식

### 3.1. 르페브르의 공간적 실천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의 생산을 중층화된 공간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세 가지 층위<sup>21)</sup> 혹은 계기로써 다양한 형태의 공간생산방식을 설명한다. 사회적 공간의 실천은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총체적으로

14)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도서출판 한울, 2002, p.89  
 15)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사회적 생산은 공업화 시대의 사물이나 작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 사회의 공간 생산을 의미한다. 사회적 공간은 다른 생산물들을 포함하며, 이 생산물들이 동시적인 공존상태에서 맺는 관계들을 포함한다. 사회적 공간은 일련의 조각이 가능하며,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일상적 삶이 포함되어 생산된 중층적 공간이다.  
 16) ①물리적 공간은 자연에 대한 인식으로 규정되며 구체화된 실체로서 실천적이고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공간이다. ②정신적 공간은 공간에 대한 형식적 추상으로서 철학자나 수학자들이 정의한 공간을 의미한다. 사회체제를 지배하는 담론, 지적 논리, 추상적인 도시 계획 이론이나 경제적 가치에 의해 논의되는 공간, 즉 공간의 생산이 지배관계에 의한 사회적 관계들을 함축한다.  
 17) 박영민, 르페브르의 실천전략과 사회공간, 공간과 사회 통권 제9호, 1997, p.210

18) Hem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예코리브르, 2011, p.59  
 19) 미즈우치 도시오(水内俊雄), 공간의 정치지리, 심정보 역, 푸른길, 2010, p.224  
 20) 장세풍,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58권, 2006, p.598  
 21) ①공간적 실천 : ‘지각 공간’으로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공간을 생산, 재생산하며, 일상에서 지각되는 공간의 물리적 구체화를 의미한다. ②공간의 재현 : ‘인지 공간’으로서 학자나 도시계획가, 공간 계획의 수립자 등이 부여하는 사회적 생산양식의 질서와 연결된다. 이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공간을 계획하고, 지식과 기호, 코드 등의 체계화를 지향한다. ③재현의 공간 : 작가, 예술가 등의 상상력에 의한 상징과 심상의 ‘체험 공간’이다. 이 공간은 규범을 벗어나거나 공간의 재현과 충돌하기도 하며, 사회적 산물인 경제적, 기술적인 것 이상의 유희적, 상황적 공간이다.

결합된다. 중첩된 공간의 역할로서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실천의 공간인 동시에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공간이다. 그는 사회적 공간의 실천과 실천을 특징짓는 공간의 코드를 논하면서, 코드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공간과 맺는 실천적인 관계, 공간과의 상호작용, 주변 공간과의 관계 사이에 위치<sup>22)</sup>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간 개념을 규명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비(D. Harvey)는 구체적인 공간적 실천(material spatial practices)<sup>23)</sup>으로서 르페브르의 공간적 실천을 논하였다. 그는 사회적 체계 속에서 규정되는 공간은 사회적으로 양식화된 공간 체험이며, 공간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흐름, 그리고 상호작용에 의한 공간<sup>24)</sup>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체는 집단적 의식과 규범을 통해 집단화 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공간적 실천에 있어서 일상은 일정 정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니며, 개인을 집단화시키고, 일상적인 반복을 통해서 사회적 삶을 구조화한다. 일상은 공간적 실천을 통해 물리적으로 생산되는 것이고, 역으로 주체가 사회적 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일상은 물리적 공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공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적 전략으로서,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천으로서 가능성을 가진다.

### 3.2. 기 드보르의 심리지리적 연구

기 드보르는 현대자본주의 사회를 스펙타클(spectacle)의 사회로 정의한다. 스펙타클은 자본주의의 과잉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변화, 삶의 패턴 변화 등과 궤를 같이 해 현대사회의 전면에 부상한 것<sup>25)</sup>으로, 매체에 의해 대량생산되고 유포되는 이미지를 말한다. 현대인에게 일상적 삶은 이미지로부터 시작되고 스펙타클은 이미지들의 단순 집합 이상의 강력한 힘으로 발휘된다. 이미지에 매개된 일상은 사회적 관계로 확대되는데, 이때 스펙타클에 지배되는 일상은 수동적이며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소외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드보르는 스펙타클의 이미지에 포획된 삶으로부터 나타나는 소외되고 수동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또한 도시공간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을 거부하는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고자 ‘반-스펙타클적’ 실천을 제시한다. 이는 국제상황주의자들<sup>26)</sup>의 ‘심리지리(psycho geography)’와 ‘표류(dérive, dirf)’의 개념으로 전개된다. 그들은 도시공간이 물리적 분절을 통해 일상을 강요한다고 보고 일상을 둘러싼 주변환경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의 실천은 지배된 행동양식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러한 실천적 행위들을 통해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구역 설정의 재조정을 요구하였다.

드보르와 상황주의자들은 르 코르뷔제의 ‘거주 통합체(unit'e d' Hanitation)’<sup>27)</sup>로 대표되는 도시비전에 극명한 반대를 표명하며, ‘환경 통합체(unit'e)’라는 새로운 장소를 제시한다. 도시비전에 대한 저항과 대응으로서, 도시공간의 새로운 관점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 ‘심리지리’이다. 심리지리는 도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일상과 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법칙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도시공간으로부터 발견되는 공간적, 지리적, 심리적 탐구의 실험으로, 일상적 경험과 도시공간의 특정 구역에 내재한 혁명적 가능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는 도시의 일상생활이 조절되고 통제되는 방식, 그러한 통제와 조작이 폭로되고 전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sup>28)</sup>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의 노력이다. 심리지리는 그 명칭자체가 나타내듯 주관적, 객관적 연구방식을 결합<sup>29)</sup>한 통합적 시도이다. 즉, 물리적 도시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부터 발화하는 실천의 가능성을 기존의 도시구역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심리지리적 연구의 방법인 표류는 기존의 도시공간을 걷는 실험적 행위를 말한다. 표류를 하는 동안 도시공간의 지형과 사람들 혹은 집단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의 지형적 조건으로부터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이로써 개인과 집단의 만남, 경로의 선택, 도시공간의 변화하는 분위기와 그에 영향을 미

22) Hern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예코리브르, 2011, p.57  
 23) 하비는 구체적인 공간적 실천으로서 네 가지 차원을 주장하였다. 접근성과 거리화, 공간의 전유와 활용, 공간의 지배와 통제, 그리고 공간의 생산을 언급하였다. 공간적 실천으로서의 공간 생산은 물리적 하부구조와 사회적 하부구조의 영역적 조직화이다. 물리적 하부구조는 감각기관의 사용이나 노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외부세계인 공간을 지각하는데 필요한 토대로서 유효하다.  
 24) David Harvey,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화·박영민 역, 도서출판 한울, 1995, p.270  
 25) 박지완, 스펙타클의 지배와 인간의 (자기)소외-G.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33권, 2007, p.200

26)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비판론이 논의될 때, 프랑스의 대중운동을 이끌었던 이들이 ‘국제상황주의자’ 단체와 드보르였다. 이 단체는 8개국 예술가들이 만든 예술실험의 단체로 1972년 해체되기까지 그 단체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드보르였으며, 현재의 사회적, 공간적 ‘상황’이라는 객관성에 대처하고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27) 거주 통합체는 1930년 르 코르뷔제가 제안한 「빛나는 도시(The Radiant City)」에서 발표된 도시계획으로서, 새로운 집합주거인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이다. 그는 과밀한 도시의 폐기보다 도시의 재정비를 추구하였다. 상황주의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집단의 반대와 난제에 봉착하여 1947년부터 1952년 사이 마르세이유에 세워졌다. 그들은 20세기의 도시구조가 현대인의 근본적인 자유,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고 보았다.  
 28) 박노영,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 이론 연구 : 스펙타클의 도시 공간에 대한 비판과 실천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2, p.76  
 29) Ibid., p.76

치는 요소들을 파악한다. 이 실험에서 보행자는 일상생활에 은폐된 스펙타클의 공간인식으로부터 비관적 잠재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공간창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갖는 것이다.

표류와 심리지리는 도시에 대한 하나의 총체적 관점이다. 상황주의자들은 심리지리적 표류를 통해 주의를 기울였던 도시공간의 장소를 ‘환경’이라 명명하고, 이상적인 환경의 실체를 ‘환경통합체’라고 하였다. 표류와 심리지리는 도시공간의 특정 구역, 즉 장소에 대한 연구이자 부분적인 변혁에 대한 통찰력을 전제한다. 발견한 장소들은 도시공간의 동질화에 저항하면서 실재하는 장소들로서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들이다. 이러한 장소는 행위의 집점과 연계된 궤적으로서 심리지도<sup>30)</sup>에 표기된다. 그들은 심리지도를 통해 도시계획과 재개발의 담론 속에 잃어가는 특별한 장소를 찾고, 스펙타클 사회에서 상품에 종속되는 도시공간의 역사와 일상생활의 실천을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드보르와 상황주의자들은 도시공간의 탐색과 상황의 구축을 위해 표류와 심리지리의 실천방식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르페브르가 주목한 놀이와 참여로서의 축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공간에 대한 상징적 점유로서, 예술적 공간실험의 방법으로 실천되었다. 스펙타클의 사회에 저항하는 드보르의 실험적 예술운동은 행동적으로 실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3.3. 게데스의 도시계획 실행

게데스<sup>31)</sup>가 주장하는 「도시학(civics)」의 도시는 지리, 사회, 경제, 문화적인 여건과 상호 작용을 규정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유기체적 존재라는 인식이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원, 발전과정, 구조,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실행될 수 있다. 그는

30) 드보르(1956)와 아스거 존(Asger Jorn, 1957)이 공동제작한 지도로 파리의 기존지도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도는 도시에 부여된 질서와 체계, 분할이나 스펙타클한 도시의 시각적인 조망을 충실히 제공하는 표준적인 지도의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류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보행자를 중심으로 경험적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지도이다. 이 대안적 지도가 나타내는 것은 결국, 심리지리적 표류를 통해 찾아 낸 생생한 공간인 ‘환경 통합체’들이다. 이로써 지배적인 공간에 대한 전복과 기존 도시의 새로운 공간의 환기를 통해 도시를 재창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거리의 패턴에 대한 복잡한 묘사, 교통의 흐름에 대한 관찰,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박노영,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 이론 연구 : 스펙타클의 도시 공간에 대한 비판과 실천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논문, 2002, p.82 요약

31) 게데스는 프랑스에서 활동한 생물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도시계획 이론가였다. 그의 학문적 성과들은 다양한 관심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관됨으로서 이루어졌다. 생물학에서 시작한 그의 학문은 사회학으로, 다시 도시문제의 해결이 결국 활동과 환경이 상호관계에 대처하는 것이라는 도시계획 이론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운동의 교육적, 실천적 이론가였다.

지리사회학자 르 플레(Lieu Travail Famille)의 세 범주, 장소(place), 노동(work), 주민(folk)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시의 발전과 구조, 기능이 형성되고 진화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서 게데스는 도시계획을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하고, 상호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공간적 개혁을 위한 실천으로 제시하였다. 게데스가 말하는 ‘상호관계’는 모든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장소(지역)라는 통합된 유기체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또한 장소의 진화메커니즘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수직적 관계와,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수평적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모든 현상을 논구할 수 있는 유일한 틀(context)로 이해되며, 이러한 지역 개념은 임의로 정의될 수 없는 실체이자 주민의 경험 속에서 구체화<sup>32)</sup>된 것이다.

그의 실천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공간실천을 위한 행동적 실천으로서 교육을 강조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이다. 그의 공간적 실천은 도시계획의 직접적인 활동과 주민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이 권력에 의한 지배와 자본, 그리고 기술의 관점에서 시행되는 것을 비판하고 도시계획의 이론보다 실천운동을 더 중요시하였다.

게데스는 모든 계획과 입안에 앞서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조사와 체계적인 분석, 진단을 제창하고 또한 그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도시계획의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sup>33)</sup> 그는 도시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장소로서 이해하였으며, 지역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현장중심의 실천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 4. 사회적 공간의 실천적 관점

### 4.1. 일상과 조우하는 체험

일상생활의 장소로서 도시공간은 사회의 체계와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이 복합되어 나타난다. 르페브르는 도시의 일상생활을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르페브르에 영향을 받은 드보르는 일상에 은폐된 혁명적 가능성을 표류라는 관찰영역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도시공간을 걷는 행위는 특정 장소와 장소 사이를 체험하는 공간자각의 과정으로서, 지리적 지형과 사회적 관계들이 맞물린 지점에서의 체험이다.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발휘되는 감각적 체험이며, 일상으로 실천되는 순환적 체험인 것이다. 자율적 표류의 체험은 새로운 장소의 발견으로서 새로운 지도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공간

32) 국토연구원,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도서출판한울, 2006, p.366

33) Ibid., p.370

의 지형적 형태와 보행의 패턴, 그리고 보행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지하게 된다.

체험으로 발견한 새로운 공간은, 이상적인 일상이 구현되는 장소로서, 생생하게 조우하는 공간이다. 르페브르와 드보르가 꿈꾸는 공간은, 일상에서 지각되는 공간과 언어로서 규정되는 개념공간을 포괄하면서 일상의 균형과 자각으로 체험되는 생동의 공간인 것이다.

시·공간적으로 고착화된 도시는 개인보다 집단 혹은 공동체에게 각인된 장소이다. 이 장소는 공간의 생성과 역사, 목적, 기능 등을 암시하는 다양한 표식을 통해 그 실체가 증명된다. 이는 게데스의 연구방법으로 조사와 관찰이라는 자연과학적 연구의 지역조사이다. 지역의 배후에 부존하는 표식들을 기록하는 지역조사는, 장소의 모든 국면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체험된 정보의 목록은 장소를 인식하는 공간체험의 실제적 증거이다. 이것은 장소에 축적된 역사적 사실로부터 공간적 실체가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비물리적인 실체들이 편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장소에 대한 단서들을 탐색하는 감각적 체험으로서 자각의 과정이다.

공간의 자각은 자신으로부터 공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열중하는 것을 말한다. 곧, 체험을 통해서 공간을 읽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때 공간은 다양한 감각적 경로를 통해 교감되는데, 신체적으로 체험되어 일상의 삶속에서 연동하는 공간인식의 기제에 의해 지각된다. 아울러 일상의 공간은 삶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의 자각일 뿐 아니라 공동의 자각으로 유도되는 공통 감각으로서의 자각인 것이다.

## 4.2. 매개적 관계의 산물

짐멜은 사회적 공간을 논하면서 '주체'를 강조하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부터 도시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것이다.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적 실천은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공유하면서 응집성과 일관성을 가진다. 르페브르의 실천된 공간 역시, 하나의 점으로 혹은 그 점을 중심으로 잠재된 모든 요소들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공간의 실천에는 사회적 관계들이 잠재적으로 축적되며, 공동체적 일상에 사회적, 물리적으로 기여한다.

사회적 실천의 거점으로서 공적공간은 공동체의 매개적 역할로서 지리적 접점에 위치한다. 르페브르는 공간이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며 사회적 존재의 매개체이자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매개와 실천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공간은 반-공적·반-사적인 장소로, 만남의 장소, 거리, 통로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곳에서 공적 공간의 우월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과 집단의 매개공간

인 공적 공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적장소를 중심으로 한 통로의 교차점에서 개인은 집약된 교류를 통해 우연한 만남을 경험하고, 개인을 포함하는 집단과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접근된다. 가장 주된 공적 장소와 그 장소를 경유하는 통로 등이, 표류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되고 재구성되며 구축되는 것이다. 거주지로부터 지리적 접근이 가능한 이 공간은,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 공유되는 공간의 특성으로 동질감을 가진다. 공동체의 공간적 실천은 물리적으로 구축되는 공간이자 새로운 양식의 생산이 된다. 공간 내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총합 이상인 사회적 관계들을 포함함으로써 수용 가능한 유형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각의 공간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되는지의 과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간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매개되며, 매개의 방식으로서 공간의 양식이 생성된다. 이 때 양식은 공동체의 공적 장소에 집중된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들에 의해 그 형식과 방식,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함축되어 나타나는 고유한 매개적 산물로서의 양식인 것이다.

## 4.3. 주체가 참여하는 실행

르페브르의 일상성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 사회를 이해하는 주체적 삶으로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드보르는 스펙타클에 저항하며, 공동체를 위한 사회운동으로서 예술실험을 실천하였다. 이들에게 도시공간은 상호작용에 의해 구조화되는 사회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장소이자 사회적 조율의 공간이다.

게데스 역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인 도시계획을 주장하는데, 전문가의 설계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지적 공유와 합의의 과정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도시계획의 방법론은 주체로서의 실행과 구상, 나아가 현장경험과 이론의 두 가지 영역을 총체적으로 결합시켜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체의 참여는 사회와 공동체가 교류와 조율로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게데스는 실증적 연구만이 도시공간의 실천에 기여하는 전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르페브르 또한 명확하고 한정적인 현상연구<sup>34)</sup>를 배제하지 않음을 표명하였다. 이들의 사회적 공간에 관한 연구는 실증을 통

34) 도시학 연구방법은 생태학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지역조사'와 '역사조사'의 방법을 제시한다. 두 가지 방법이 도시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도시의 시·공간적 배후에 부차하는 지리, 인문, 산업, 문화 등의 자연적, 사회적 자원과 그 배경에 상호관련되어 성장한 현존하는 실체로서의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시공간이 지역(장소)의 토양으로부터 자생하는 유기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게데스의 '지역' 개념은 임의적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경험 속에서 구체화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지역의 의미에 공간 혹은 장소의 개념보다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해 온 주체가 비중있게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한 총체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에 대한 조사와 관찰은 도시공간의 현상들과 상호침투적 관계에 대응하는 사회적 실천이고, 이때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관계는 항구적인 사회기록을 구축하는데, 기록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실천적 가능성을 가진다. 도시는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과 관계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는 주체와 그 집단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상황의 갈등과 관계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공간으로 조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 구축만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과 필요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공간적 실천의 핵심이다. 공간에 있어서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상생활의 실천은 협력과 합의, 조율하는 방식의 공간적 실천이다. 이는 공동체의 공공적,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적 실천이 되는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공간 담론을 통해 공간의 실천적 관점을 모색하고자, 일상생활과 공간의 생산,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실천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았다. 르페브르와 짐멜, 드보르, 게데스는 도시공간의 사회적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단서들을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들은 고찰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도시공간과 일상성,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나아가 도시공간의 계획에 있어서 공간실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실천되고 확장될 수 있는 의미를 공간에서 찾아가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에게 도시공간은 사회의 구조와 관계, 그리고 사회현상들이 집약되어 표출되는 일상의 공간이었다. 일상으로부터 공간적 실천의 시도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방법론에 앞서 사회와 공간의 관계, 주체로서의 공간, 그리고 공간을 실천하는 방식에서이다. 연구의 결과로서 사회적 공간실천의 관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상과 조우하는 체험에 의한 자각의 관점이다. 도시는 일상생활의 장소이자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체험의 공간이다. 공간으로부터 느껴지는 섬세한 감각적 자각으로서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주변공간에서의 체험이다.

둘째, 사회와 공간의 매개적 산물로서 양식의 생성적 관점이다. 공간은 역사의 과정으로서 사회와 매개되며,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온 관계들의 총체이다.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 공간의 특성으로 공유되며 동질감을 가짐으로서 새로운 양식이 창출되는 것이다.

셋째, 주체가 참여하는 실행으로서 조율의 관점이다.

도시공간은 상호작용에 의해 구조화된 사회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상의 장소이다. 주체적 삶의 장소는 사회적 조율에 의해 협력되는 방식으로 공간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간 담론으로부터 도출한 공간실천의 주요한 맥락은, 우리의 삶은 공간적 실천에 의해 영위되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구조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간은 구체적인 현실로서의 공간, 이상적인 삶의 공간, 그리고 일상이 전개되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의 주체로서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공간의 단서를 찾음으로써 공간을 실천한다. 이는 창의적인 공간구상의 기회와 새로운 일상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공간디자인이다. 결국, 공간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공간실천은, 공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체적 삶을 풍요롭게 보장해주는 틀로서,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으로 귀결된다.

##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도서출판한울, 2006
2. 미즈우치 도시오(水内俊雄), 공간의 정치지리, 심정보 역, 푸른길, 2010
3.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도서출판 한울, 2002
4.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5. David Harvey,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박영민 역, 도서출판 한울, 1995
6. Guy Debord, 이경숙 역, 스펙타클의 사회, 1996
7.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8. Henri Lefebvre,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기파랑, 2005
9. Markus Schroer, 공간·장소·경계, 정인모·배정희 역, 에코리브르, 2010
10. 김민지, 도시공간과 실천적 일상전술의 예술적 실행, 현대미술학논문집 제16권 2호, 2012
11. 박영민, 르페브르의 실천전략과 사회공간, 공간과 사회 통권 제9호, 1997
12. 박치완, 스펙타클의 지배와 인간의 (자기)소외-G.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33권, 2007
13.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58권, 2006
14.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문화이론적 접근, 전남사학회 46권, 2005
15. 박노영,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 이론 연구 : 스펙타클의 도시 공간에 대한 비판과 실천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논문, 2002

[논문접수 : 2013. 06. 28]

[1차 심사 : 2013. 07. 16]

[게재확정 : 2013. 08. 09]